



수도권
느티나무

소를 잡는 곳에 있는 신목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성남-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정년도 1982	백현동 571
관리기관 경기	37° 28' 49.32" N
수령 341년	126° 47' 31.00" E
수고 16m	
흉고둘레 5m	

개발이 한창인 판교 신도시에 있는 보호수(성남-9) 느티나무는 판교동에서 백현동으로 넘어오는 고개인 옛 잣너머마을의 언덕에 자라고 있다. 현재 느티나무 주변은 모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41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안내판은 나무나이를 30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16m, 가슴높이둘레는 500cm, 밑동둘레는 7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굵게 2갈래로 갈라졌고, 굵은 가지 2개는 다시 각각 2~3갈래로 가지를 치면서 잎이 사방으로 퍼져있다. 북쪽과 남쪽의 가지와 잎이 무척 왕성하지만 동쪽과 서쪽 가지도 넓게 펼치고 있어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이며, 무성한 잎과 가지가 만드는 풍성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원줄기가 2갈래로 갈라지는 가운데는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이

진행되었으나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짐승의 도축과 관련이 있다. 옛날 마을에서는 명절에 제를 지내기 위하여 느티나무 밑에서 소를 잡았다. 소를 잡은 주민들은 느티나무 밑에서 제를 지낸 후에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배탈이 났다. 사람들은 배탈이 난 이유가 이 느티나무에 귀신이 들어있으며, 귀신이 들린 나무 밑에서 소를 잡는 잔인하고 불결한 모습을 보인 탓이라 생각하였다. 이후로는 이 느티나무 근처에서 짐승을 잡지 않았다. 그랬더니 마을도 평온하였다. 예전에는 단오 때 느티나무에 그네를 매어 뛰어 놀았다. 현재 판교 신도시 개발로 이 일대 공사가 한창이지만 느티나무는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보호되고 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는 시원한 나무그늘과 함께 이 곳을 찾는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